

## 개화기 이후 여성복식의 100년 변천사에 관한 연구

입숙자 · 류은정\* · 박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대전보건전문대학 의류직물과 시간강사  
\*\*오산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

###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Female Costume during the 100 Years after the Flowering Time

Sook Ja Lim, Eun Jung Ryu\* and Hye W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of Ehwa Wamo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Part-time Instructor of T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Dept. of Fashion Design, Full-time Instructor of Osan College

#### 目 次

Abstract	1. 복식사적 배경
I. 서 론	2. 여성복식의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의의	3. 여성복식의 실증적 고찰
2. 연구방법 및 절차	Ⅲ. 결 론
II. 본 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look through the development of female costume during the 100 years after the flowering time. By refocusing on the flow the Korean female costume, this study present representative costume style of that time and find out the fashion cycles.

For this purpose, the colthes during the 100 years (from 1890 to 1993) were observed

본 연구는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학술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and changes of female costume, hair style and shoes were observed. Literature review and content analysis method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or Korean costume, there were little changes in basic styles and only the jacket and skirt lengths were changed. After 1960s, as modernization of socio-cultural aspects were processed, Korean costume became formalized and structure of costume was duplicated.

In the 1960's mint skirts and pantalons won popularity. In the 1970's, diverse modes including mini, midi, maxi, pantalon, hot pants appeared, and especially the jeans were popular. In the 1980's big & loose silhouette was in fashion in the beginning, and fit & flare silhouette later in the decade. In the 1990's styles emphasizing natural femininity came in fashion.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female costume styles of Korea, Fashion cycles were found, especially in the phenomenon of 70's styles repeating in the 90's

## I. 서 론

### 1. 연구의 의의

인간의 복식이란 한 민족의 정서와 감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개화기는 정치체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기술경제의 발달로 인한 사상과 문예측면에서 일대 전환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사조는 복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여성복식에 최초로 서양복식차림이 도입되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여성복식은 한복과 양장의 이중복식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식사에 서양패션이 도입된 전환기라 할 수 있는 개화기를 기점으로 그 후 100년 동안의 여성복식의 변천과정을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복식 유행의 흐름을 재조명하여 당대 유행한 대표적인 복식양식을 제시하고, 유행의 주기적 경향을 파악하며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여성복의 유행경향을 예측할 수도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더불어 100년 동안의 여성복식 고찰을 통해 당대에 나타난 민족적 정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개화기인 1890년부터 1993년까지의 100년동안의 여성복식변천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갑오경장을 전후한 1890년대부터 1993년까지의 100년동안의 의복에 영향을 미친 복식사적 배경을 10년을 단위로 하여 연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1989년대~1993년의 1990년대까지의 100년동안의 복식, 즉 의복과 머리모양,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하여 10년 단위로 연대별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한복과 양장의 2중복식 구조하에 있던 1989년대~1990년대까지는 한복과 양장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으며 양장이 일

상복화된 1960년대 이후부터는 양장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한 복식사적 자료수집은 선행연구논문과 기준문헌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대별로 유행한 대표적인 복식양식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복식사의 이론적 고찰을 보완하고 이론적 고찰의 주관적인 해석방법에 객관성을 높이고 유행의 주기성을 파악하고자 여성복식형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1890년대~1950년대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시청각교육연구원이 소장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여성, 패션 50년 등을 참고하였다. 여성잡지가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당대의 대표적인 여성잡지를 참조하였다. 채택한 잡지는 1955년~1968년은 여원, 1969년~1982년은 의상, 1983년~1992년 3월은 월간 멋, 1992년 4월~1993년 12월은 마리끌레르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표본추출방법으로는 시대마다의 의복양식을 대변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월간 여성잡지와 패션전문잡지에 전신의 차림새가 명확하게 실린 것으로 중복되지 않는 첫번째 스타일과 마지막 스타일의 사진을 표집하였다. 그리하여 각 사진의 스타일을 바디스 맞춤새, 소매의 맞춤새, 허리선의 위치, 칼라의 크기, 치마의 길이, 바지의 길이의 6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스타일수는 총 854개이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쿼트로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 본 론

### 1. 복식사적 배경

189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100년 동안의 의복에 영향을 미친 복식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0년대에 발생한 갑오경장(1894년)은 전통적 신분제를 폐지시키고, 복제 간소화와 양복화를 위한 기초를 이루는 등 사회적, 문화적 개혁의 전환점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정부의 개혁은 군인과 소수 관리에서 국한되었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일반인들이나 부녀자들의 복식은 훨씬 뒤에야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1900년대에는 국권이 상실되는 위기 속에서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신교육의 일환으로 여학교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당시 여학교에서는 한복과 양복의 재단 및 바느질법, 재봉틀 사용법 등을 교수함으로써 이후 복식 변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10년대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반발하여 양장은 주춤해지고 한복 붐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복식문제 이전에 독립운동과 애국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진흥운동, 산업진흥운동 등의 민족 운동이 일어났고 여성의 근대교육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였고, 신여성들은 여성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과 복식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남성들의 양복 착용을 확산시켰다.

1930년대에는 여성교육의 확대로 신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양장착용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말기부터 전시 경제 체제화로 복식 분야에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양장은 퇴조하였다.

이 당시 여성들의 양장은 남성들의 양복점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졌으나 1938년 최경자씨가 최초로 함흥 양재학원을 설립<sup>2)</sup>하고 양장점을 열면서 분리되었으며, 1934년에는 국내 최초의 의상감상회가 개최되어 의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양장 착용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었다<sup>2)</sup>.

1940년대 초반에는 전시 경제체제가 계속되면서 섬유 공업이 군수 공업화하여 군복, 낙하산 등을 생산하였고, 사치품 제한령과 복지의 배급제로 복식의 침체 상태에 있었으나,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와 밀수품의 유입, 해외 동포의 귀국으로 양복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낙하산 직물인 'Nylon66'이 인기를 끌었으며, 1947년에는 양면기, 양말기 등의 국산화로 메리야스 직물의 보급이 원활해졌다<sup>3)</sup>.

1950년대 초반의 구호물자는 한복에서 양장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후반에는 한복과 양장의 착용이 거의 비슷하게 공존하게 되었다. 또한, 1955년 여성 교양지인 「여성계」와 「여원」의 창간은 패션 문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1956년 노라노 씨에 의해 본격적 패션쇼가 개최되어 최첨단 모드를 소개하였으며, 1957년에는 서수정 씨와 최경자 씨가 '입기 쉽고 편한 옷과 아름답고 경제적인 옷'을 선보이는<sup>4)</sup> 등 패션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나일론은 질기고 가벼워 젊은 여성들의 블라우스는 물론 속옷에까지 두루 사용되었고, 남성복은 복지 부족으로 군복이나 미군 부대에서 흘러 나온 옷감이나 밀수품, 구호품 등의 복지가 많이 사용되었다.

1960년대에는 4.19와 5.16을 거쳐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한·일 국교 정상화로 국제 교류가 증대되면서 생활 양식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1960년대 초 재건국민운동본부는 외국산 의류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신생활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의복 간소화를 전개하여 남성의 재건복이 등장하였으며, 여성에게는 '신생활 복장' 콘테스트를 통하여 신생활복을 제시함으로써 양장이 일상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5)</sup>. TV의 보급으로 패션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1968년에 최초의 패션 전문지인 「의상」이 창간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레나운, 반도 패션 등 대기업이 숙녀 기성복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성복 산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제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중반 이후 의류산업은 수출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기술과 설비를 현대화, 자동화하였고,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및 소비 성향의 고급화로 기성복 착용율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sup>6)</sup>.

1980년대는 경제 성장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였다. 특히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의 GNP 성장은 소비 문화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사회 전반에서 현대화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국 브랜드의 도입, 1980년 컬러 TV의 방영과 1984년 패션 전문지 '월간 댕'의 창간, 교복 자유화에 따른 캐주얼 브랜드의 급증, 1984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스포츠 붐, '서울 국제기성복 박람회' 개최 등은 패션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이에 따라 개성적으로 여유와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스타일을 갈망하는 의복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시기이다. 정치적으로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민주화 과정을 추구하고, 통제정책에서 개방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한 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에 있어서는 수출면에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차원에서 호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수에 있어서는 금융 실명제 실시와 물가고에 의한 인플레이 현상으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개방화, 국제화 현상으로 의복에서도 개성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여성복식의 이론적 고찰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0년 동안의 여성복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 연대별로 대표적인 복식양식을 제시하였다.

1890년대에는 양장 차림이 등장하였고, 최초의 착용자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다. 하나는 1899년 윤치오의 부인인 윤고라(尹高羅 : 尹高麗라는 설도 있음)가 효시가 된다는 견해<sup>7)</sup>와 당시의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경옥당이라는 여인이 최초일 것이라는 견해<sup>8)</sup>가 있으며, 1895년 경 고종 황비인 엄비가 양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를 최초의 양장 착용이라고 보는 견해<sup>9)</sup>도 있다. 이 시기 양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갑슨 걸 스타일, 지고 드레스, 버슬 스타일 등 S자형 실루엣이며, 대부분이 긴 플레어 스커트에 트레인이 달렸다. 한편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20cm 안팎으로 매우 짧은 가리개용 허리띠가 필요할 정도였으며, 긴 치마를 입었으나 하류층 여성들은 폭이 좁고 짧은 '두루치'를 입기도 하였다<sup>10)</sup>.

머리모양도 처녀는 땡기머리, 부녀자들은 쪽진 머리나 엷은 머리였으며, 어여 머리나 큰 머리의 궁중 양식도 그대로 존재하였다. 양장의 경우에는 머리를 위로 올리고 레이스로 장식한 갱이 넓은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신발은 이른바 개화 쥘신이라는 혼적초혜가 유행하였다<sup>11)</sup>. 양복이 공인되고 고종과 엄비가 구두를 신자 1895년경부터 일부 상류층에서 양장에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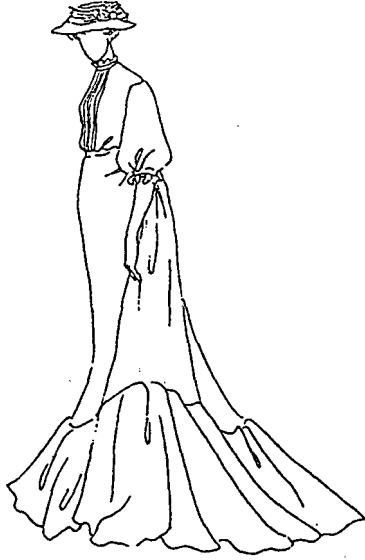
1900년대에는 1898년 장옷을 폐지하고 대신 우산을 지니도록 청하는 상소<sup>12)</sup>를 시작으로 여성 복제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장옷의 폐지는 내외법의 철폐에 따른 당연한 요구로서 일부 고관부인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 및 여학생들은 이미 장옷을 벗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였다<sup>13)</sup>. 이것이 여학생이나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유행이 되어 우산을 장옷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였으며, 흰 수건을 우산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sup>14)</sup>.

쓰개치마가 폐지되고 통치마 저고리가 수용되면서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는 등 한국여성복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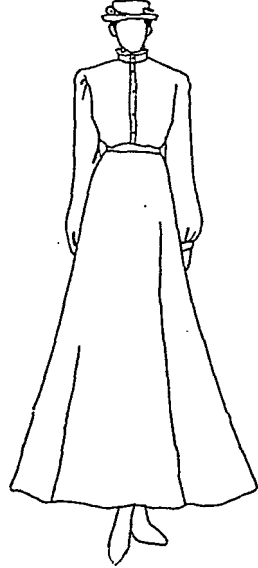
이 당시의 양장은 하이네크 라인에 모자를 쓰고, 길이가 긴 드레스나 블라우스에 롱 스커트를 입은 차림이 최첨단의 스타일이었고, 스커트의 트레인은 사라졌다.

머리모양은 후반기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팜프도어가 등장하였고, 여기에 반드시 카프린 등의 모자를 착용하였다.

1910년대에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전도 부인이나 여학생들의 저고리 길이는 길어졌으나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 길이는 오히려 더욱 짧아졌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짧은 치마, 일반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입음으로써 치마길이가 2중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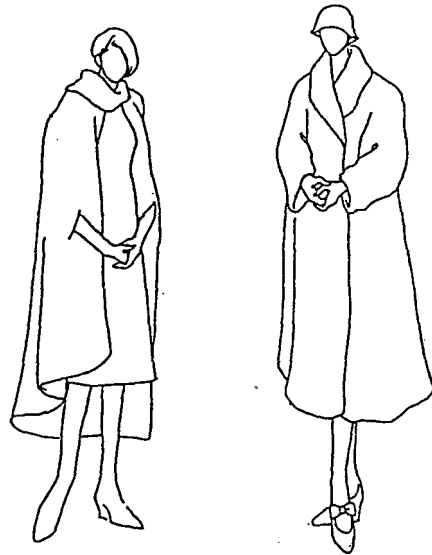
<그림 1> 1890년대



<그림 2> 1900년대



<그림 3> 1910년대



<그림 4> 1920년대

양장은 원피스가 중심이었고 수트나 재킷,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 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S자형 실루엣에서 후기에는 앰파이어 실루엣이 나타났다. 스커트의 길이가 변화하여 바

다까지 오던 스커트 길이는 1918년 이후에 발등까지 짧아졌고 네크라인은 대부분이 하이 네크라인이며, 소매는 비숍슬라이브, 종 모양의 7부 슬라이브, 퍼프 슬라이브 등이었다.

머리모양으로는 다리미자루, 챙머리, 돌레머리 등이 여학생들에게 유행하였으나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트레머리로 점차 다래분량이 줄면서 가리마에 땡기를 드리우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양장모로는 1915년 경부터 카프린과 카노체라는 챙이 넓고 화려한 모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치마가 짧아지는 경향과 더불어 버선목이 길어져 갔으나 신발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1920년대에는 1910년대에 위축되었던 양장 차림이 활발해져, 양장이나 치마·저고리 위에 코트를 입는 신여성이 등장하였다. 또한 의복이 간소화되는 추세에 따라 불편했던 속옷이 간편한 내의로 바뀌었다. 속적삼은 여장용 셔츠로 대체되었고, 팬티를 입게 되자 속속곳과 다리속곳은 없어지고, 그 위에다 단속곳, 바지를 입게 되었다. 특히 짧은 통치마를 입던 신여성들은 바지, 단속곳까지 벗고 사루마다라는 짧은 무명 팬티와 어깨 허리가 달린 속치마를 입었다<sup>16)</sup>.

양장은 초기에는 약간의 장식이 가미된 스타일이지만 중반 이후부터 장식이 사라지고 직선적인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원피스의 경우 형태가 다양해졌고 정구복, 야구복, 기체체조복과 같은 운동복이 등장하였다. 스커트 길이는 초기의 발목 길이가 1928년에는 무릎까지 짧아졌으며, 코트 길이도 1921년에는 발목 길이, 1925년에는 장단지, 1928년에는 무릎 길이로 올라갔으며 코트 외에 방한용 케이프도 많이 입혀졌다<sup>17)</sup>.

머리모양으로는 1926년경에 앞머리를 약간 내리는 애교머리형의 첩지머리가 유행하였으나,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단발의 유행으로 단발 미인, 모단 걸<sup>18)</sup>이라는 신용어가 나올 만큼 단발이 오래 지속되었다. 모자는 덕혜옹주가 쓰기 시작한 크로셰가 유행하였다.

양말이 들어오면서 버선 착용이 줄어들었고, 일반 부녀자들은 고무신을 신었으나 신여성들 사이에서는 고무신 외에 경제화나 운동화, 구두를 신었고 하이힐, 중힐, 부츠, 로우힐의 반부츠, 흑백의 콤파구두가 유행하였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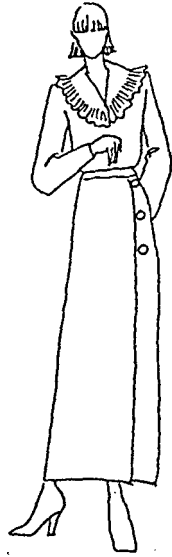
1930년대 일반 부녀자들은 한복과 양장을 같이 입었고 개량 한복에 스웨터를 입는 차림이 많았으며, 여기에 서양식 머리 모양이나 숄, 양산, 핸드백 등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양장은 여성적인 부드러운 스타일로 원피스나 오버 블라우스에 벨트를 하여 허리선을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머리모양으로는 1930년 경부터 히사시가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머리를 길게 땡아 땡기를 드리는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 여학생들은 머리를 틀어 올렸는데 이때 머리 정수리 부분에 ‘게바다’라고 하는 심을 넣어 머리 꼭대기와 뒤통수를 나오게 하였다. 이화학학생들 사이에는 단발머리가 계속 유행하였으며, 1937년에는 짧은 여성들이 긴머리를 자르고 퍼머넌트를 하였다<sup>20)</sup>. 이러한 단발과 퍼머넌트의 유행은 모자의 유행을 더욱 촉진시켰고, 초기에 챙이 좁은 모자에서 후기에는 챙의 넓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두가 보편화되었으며, 구두 발등에 꽃무늬가 놓이고 비단 리본이나 끈 장식이 달리기 시작했다.

1940년대 초기에는 일본은 전투복으로 여성들에게 몸매를 입도록 하고, 여학생복도 전쟁수행의 노력 동원에 적합한 것으로 개정을 강요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해방 후에 여성들의 바지



<그림 5> 1930년대



<그림 6> 1940년대

착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간단복’이라는 허리에 벨트가 있고 양옆에 포켓이 있는 원피스를 입도록 강요하였다. 해방이 되자 처음에는 몸빼와 간단복 대신에 재래 한복이나 통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미군정 실시와 해외 동포의 귀국으로 다시 양복화가 촉진되었다. 양장은 해방 전까지는 직선적인 형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고 활동적인 군복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해방 이후에는 퍼프 슬리브에 허리가 강조된 재킷과 폭 넓은 플레어 스커트의 부드럽고 여성적인 스타일<sup>21)</sup>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플레어 스커트는 극히 일부에서만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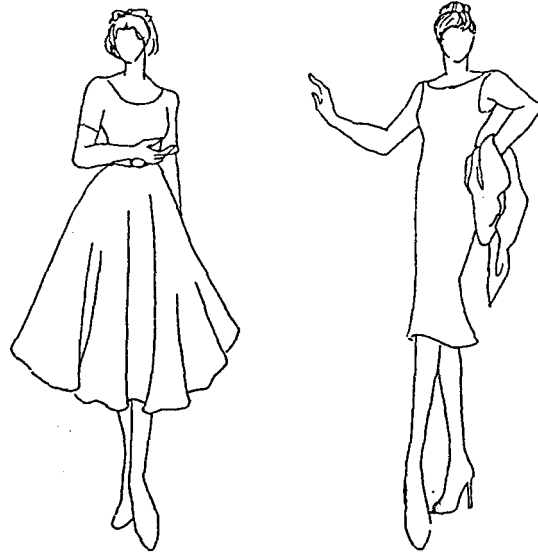
머리모양도 해방 이후에는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넨트 스타일이 다시 등장하였으며, 신발은 대체로 앞이 둥근 형태로 발등에 끈이 있는 모양이나 옥스포드 스타일의 구두가 유행하였다.

1950년대에 한복의 저고리 길이가 허리까지 길어지고 치마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졌으며 한복은 일상복보다는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예복으로 되어갔다.

초기에는 남성적인 재킷과 타이트 스커트의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으나 점차 여성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짧은 상의와 넓은 플레어 스커트의 뉴-룩(New look)이 1953년 이후 일반 여성들에게 폭넓게 유행되었다. 폭넓은 플레어 스커트를 부풀려 보이도록 하기 위해 패티코트가 사용되었으며, 후반에 들어서 슬립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로 바뀌면서 길이도 조금씩 짧아졌다. 또한 합성섬유가 등장하면서 기계주름을 잡은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가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다.

중반 이후에 등장한 맘보바지<sup>22)</sup>는 기성 세대에 반항하는 젊은 세대의 상징이었다. 1955~1956년에는 H 라인, A 라인이, 1958년에는 슈미즈 드레스, 섹 드레스가 유행하였으며, 타이트한 실루엣의 원피스에 프렌치 슬리브의 긴 소매나 7부 소매가 유행하였다.





<그림 7> 1950년대

머리모양은 전기파마, 콜드 웨이브 파마 등 다양한 파마법과 헤어 스타일이 중반 이후에 소개되었으며<sup>23)</sup>,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헵번의 숏 커트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신발은 군용 자동차 타이어로 만든 타이어 신이 유행하였다. 구두는 초기에는 끈달린 단화가 후기에는 굽이 가늘어지고 굽에 석장식을 붙인 하이힐이 크게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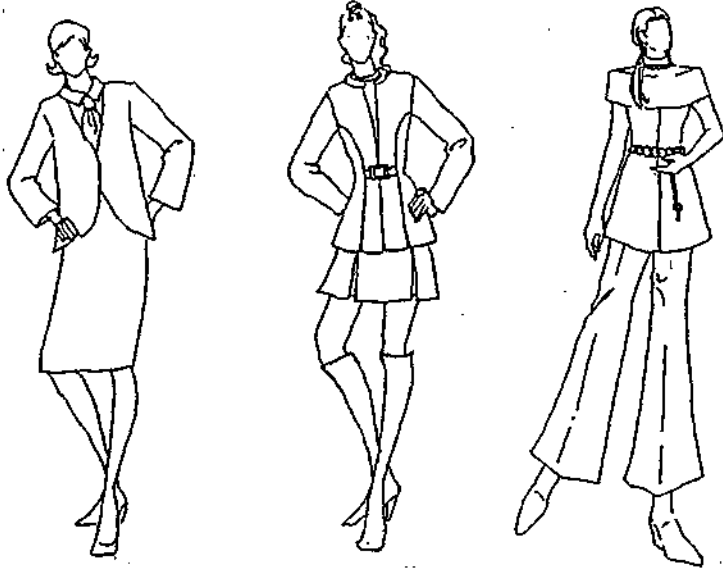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특히 장갑이 유행하였으며 여름에는 레이스 장갑, 겨울에는 캐시미어나 양피 장갑이 유행하였다. 특히 1957년 겨울에는 7~8부 길이의 소매가 유행하자 목이 긴 장갑이 등장하였고, 모자와 장갑을 동색 계열로 일치시켰다.

1960년대에는 양장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초기에는 튜블러 형의 오버 코트나 색 드레스 등의 단순한 박스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통이 좁고 몸에 맞는 맘보바지 형태의 슬랙스가 등장하였다. 스커트의 길이는 샤넬 라인으로 짧아지고, 프렌치 슬리브은 셋인 슬리브와 7부 길이의 만다린 슬리브로 변했다.

중반까지는 색 드레스가 유행하다가, 그후에는 상의는 몸에 맞으면서 스커트는 A라인의 형태로 점차 바뀌었다. 소매는 좁고 길어졌으며 웨이스트 라인이 허리선에서 약간 높아졌다.

후기에도 계속해서 몸의 선을 강조하는 A 라인 스타일에 화려한 색상이었고 원피스와 재킷의 벨트는 허리선보다 위로 올리거나 히프 라인으로 내리는 것이 특징이었고 기하학적 문양의 프린트나 강렬한 색채의 대비, 대담한 절개를 시도함으로써 의복에 장식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1960년대 또다른 특징은 미니 스커트와 팬탈롱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65년 서구에서 복식의 혁명을 이루었던 미니 스커트가 1967년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가수 윤복희의 귀국과 함께 상륙하여 1968년에 유행하였고<sup>24)</sup>, 1970년대 초에는 무릎 위 20cm 이상까지 올라갔다. 1968



<그림 8> 1960년대



<그림 9> 1970년대

년에는 판탈롱이라 불리는 테일러드 팬츠 수우트가 등장하였다<sup>25)</sup>.

머리모양으로는 언밸런스 단발이나 헤어 밴드를 하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후기에는 미너스

커트가 유행하면서 보비형의 머리모양이 등장하였다. 모자는 챙이 늘어진 것, 병거지 모양, 니트 모양 등 다양한 종류가 인기를 끌었다.

신발은 하이힐 착용이 줄어들고 앞코가 약간 무딘 로우힐이 등장하였고 1968년 이후에는 미니 스커트에 롱 부츠가 유행하였다.

1970년대 초기의 유행 경향은 미니 스타일, 맥시, 관탈롱, 핫팬츠 등 다양한 모드가 공존하였다.

1971년 봄부터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핫 팬츠가 유행하여 핫 팬츠와 오버 코트를 이용한 레이어드 스타일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무릎 길이의 큐롯 수트도 유행하였다.

또한 샤넬 라인 길이의 프린세스 라인으로 재단된 원피스가 유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캠퍼스 웨어, 타운 웨어로 관탈롱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진으로 만든 의복도 유행하였다.

중반 이후에 관탈롱은 폭이 넓고 길어졌으며 이와 함께 롱 드레스나 월남치마로 불리던 롱 스커터트가 많이 유행하였다. 겨울용 하의로는 누빈 롱 스커터트가 유행하였다. 후반에는 캐주얼 웨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루즈 록과 레이어드 록이 유행하였으며, 바지는 헝이 여유했고 밑단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농민풍 블라우스와 집시 스타일의 민속풍이 유행하였으며, 패딩으로 어깨를 강조한 재킷과 슬립 스커트, 통이 좁고 짧은 바지와 박스형 원피스를 볼 수 있다.

머리모양은 스트레이트와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젊은 층에서는 짧은 생머리가 유행하였고 1979년에는 디스코 머리가 등장하였다.

신발은 1960년대 말의 롱 부츠가 퇴조하고 짧은 목의 앵글 부츠의 착용이 많아졌으며, 후반기에는 구두코가 좁고 뾰족하고 굽이 가늘고 높은 구두가 유행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어깨를 강조하는 빅 앤 루즈(big & loose) 실루엣의 레이어드 록이 계속 유행하였으나 후반에 들어서는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두드러져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의 원칙 하에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를 비롯하여 A 라인, Y 라인 등이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는 미니부터 샤넬 라인, 미디, 맥시에 이르기까지 혼재하였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타이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외에 머메이드 혹은 트럼펫 스커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바지는 편리하고 활동적인 캐주얼 웨어 붐으로 1982년을 전후로 배기형의 디스코 바지가 유행하였고, 7부 길이의 바지도 인기를 끌었다. 후반에 들어서는 승마바지인 조드퍼즈와 일명 고리바지라 하는 타이트 바지가 유행하였다. 1989년경에는 통바지(wide pants)가 유행하는 등 다양한 바지 스타일의 등장이 1980년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의류가 일상화, 대중화 되어 패션 다운 파커가 겨울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스톤 워싱이라는 패션진이 등장하였다<sup>26)</sup>.

머리모양으로는 1980년대 중반에 스트레이트 단발형의 머리가, 후기에는 헤어무스와 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롱 스트레이트나 풀어헤친 긴 퍼머넌트머리가 젊은 층에 유행하였다. 후반에는 큰 리본 머리핀이 유행하였고 저렴한 가격의 머리 장식핀들이 대학가나 명동의 손수레에서 판매되었다.

신발은 캐주얼 붐으로 단화, 운동화 등이 애용되었으며, 화려한 색상의 스톡킹과 반짝거리는 원색 에너멜 구두가 유행하였다<sup>27)</sup>.

1990년대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에콜로지



<그림 10> 1980년대



<그림 11> 1990년대

(ecology)가 주요 패션 테마로 나타나며,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섹시한 여성미를 강조한 미니와 미디의 레이어드 룩이 등장하였다.

<표 1> 여성복식 스타일의 주된 요소의 연대별 분석

(단위 : %)

품목	스타일	연대										
		1890년대 n = 1	1900년대 n = 2	1910년대 n = 3	1920년대 n = 5	1930년대 n = 7	1940년대 n = 14	1950년대 n = 24	1960년대 n = 224	1970년대 n = 240	1980년대 n = 240	1990년대 n = 90
Bodice	Loose	-	-	-	60.0	42.8	21.4	25.0	17.9	6.2	51.2	17.0
	Semi-fitted	100.0	100.0	100.0	40.0	28.6	42.9	25.0	29.9	45.0	32.5	29.8
	Fitted	-	-	-	-	28.6	3.57	50.0	52.2	48.8	16.3	5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Waist line 위치	Low	-	-	-	-	-	-	-	3.1	.29	4.6	1.1
	Natural	100.0	100.0	66.7	40.0	57.2	92.9	87.5	78.1	90.0	89.2	88.3
	High	-	-	33.3	20.0	-	-	-	0.5	2.9	-	1.1
	구분없음	-	-	-	40.0	42.8	7.1	12.5	18.3	4.2	6.2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llar	Large	-	-	-	80.0	28.6	28.6	20.8	6.3	25.8	30.4	36.2
	Medium	-	-	-	20.0	42.8	50.0	25.0	23.2	24.2	20.0	35.1
	Small	100.0	100.0	100.0	-	14.3	7.1	33.4	25.7	27.5	22.9	7.4
	No-collar	-	-	-	-	14.3	14.3	20.8	34.8	22.5	26.7	2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leeve	Loose	100.0	100.0	66.7	40.0	-	7.1	16.7	7.1	8.3	34.2	5.3
	Semi-fitted	-	-	33.3	60.0	28.6	42.9	50.0	31.7	37.0	37.5	18.1
	Fitted	-	-	-	-	71.4	50.0	29.1	51.8	49.7	25.8	70.2
	Sleeveless	-	-	-	-	-	-	4.2	9.4	5.0	2.5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 계속

품목	년대										
	1890년대 n = 1	1900년대 n = 2	1910년대 n = 3	1920년대 n = 5	1930년대 n = 7	1940년대 n = 14	1950년대 n = 24	1960년대 n = 224	1970년대 n = 240	1980년대 n = 240	1990년대 n = 90
하	스타일										
	Mini	-	-	-	-	-	22.3	20.8	15.0	36.2	
	Natural	-	-	-	-	14.3	50.0	25.0	39.3	27.5	13.8
	Medium	-	-	-	80.0	28.6	35.8	58.4	34.4	17.1	43.3
	Calf	-	-	-	30.0	4.3	-	-	.25	14.5	3.2
	Maxi	-	-	33.3	-	42.8	-	8.3	-	5.0	6.3
Long	100.0	100.0	66.7	-	-	7.1	-	-	-	-	
의	Bermuda & Shorts	-	-	-	-	-	-	-	2.1	0.8	10.6
	Knee	-	-	-	-	-	-	-	0.4	1.3	0.8
	Pedal pushers	-	-	-	-	-	-	-	0.8	-	-
	Capri	-	-	-	-	-	-	-	-	-	2.1
	Calf	-	-	-	-	-	-	-	-	-	1.7
	Long	-	-	-	-	-	7.1	8.3	3.6	22.9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커트 길이는 1980년대보다 더욱 짧은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였으며, 에콜로지(ecology)의 영향으로 화려한 원색의 식물 프린트 문양의 롱 스커트가 여름시즌에 유행하였다. 1993년에는 타이트 롱 스커트와 미니 스커트가 함께 유행하였고, 바지는 긴 길이의 통바지가 유행하였으며 숏 펜츠가 대중화되었다. 한편, 복고풍의 영향으로 1970년대의 관탈롱이 1993년 봄부터 크게 유행하였다.

머리모양으로는 자연스런 긴 퍼머넨트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긴 생머리스타일 그리고 복고풍의 단발이나 업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신발은 민속풍의 인디안 모카신이 캐주얼 슈즈로 유행하였다. 1993년부터는 앞굽과 뒷굽이 높은 복고풍의 통굽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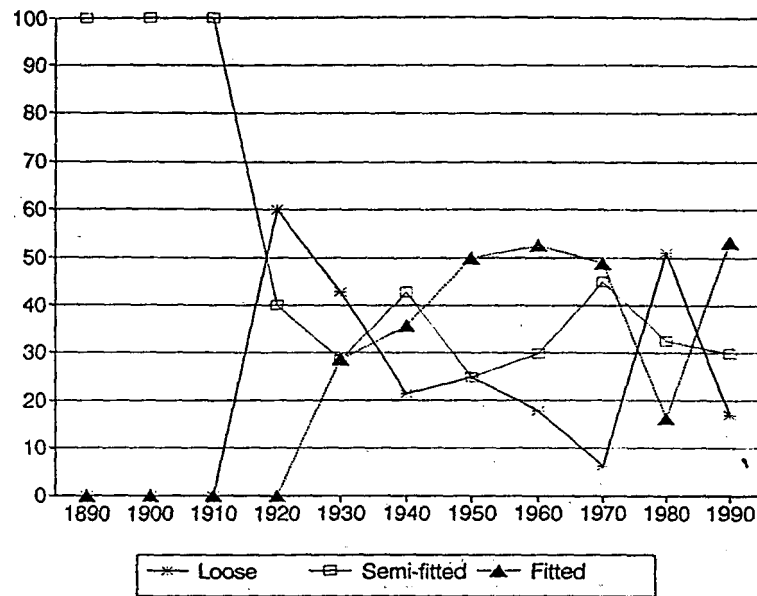
### 3. 여성복식의 실증적 고찰

여성복식의 이론적 고찰을 보완하고 복식 형태 변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의복스타일의 주된 요소인 바디스 맞춤새, 소매 맞춤새, 허리선 위치, 칼라의 크기, 스커트 길이, 바지 길이 등의 6가지 차원에 대해 10년을 단위로 연대별로 분석하였다(표 1).

#### 1) 바디스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는 약간 여유있는 스타일이 대부분이었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풍성한 스타일의 의복을 많이 착용하였다. 194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몸에 맞는 형태로

(단위 : %)



(년대)

<그림 12> 바디스 맞춤새

변하면서 1950년대에는 꼭 맞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여유있고 풍성한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 빅 앤 루즈 스타일의 경향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다시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이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이론적 고찰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1950, 1960, 1970년대에 유행하던 몸에 꼭 맞는 복식형태가 20년을 주기로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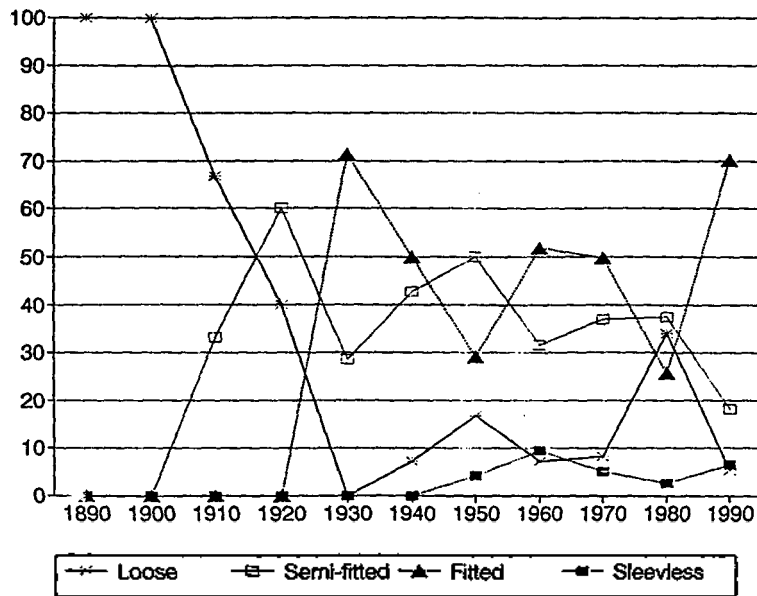
### 2) 소매

18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는 여유있는 소매통이 가장 많았고, 1920년대는 약간 여유있는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꼭 맞는 바디스에 소매통도 꼭 맞는 스타일이, 1980년대에는 풍성한 바디스에 소매통도 여유있는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다시 소매통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매의 맞음새는 바디스 경향에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꼭 맞는 소매통이 20년 주기로 90년대에 다시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허리선

1890년대에서 1990년대 까지 100년동안 거의 기본적으로 제 위치의 허리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1960년 이후 로우 웨이스트 라인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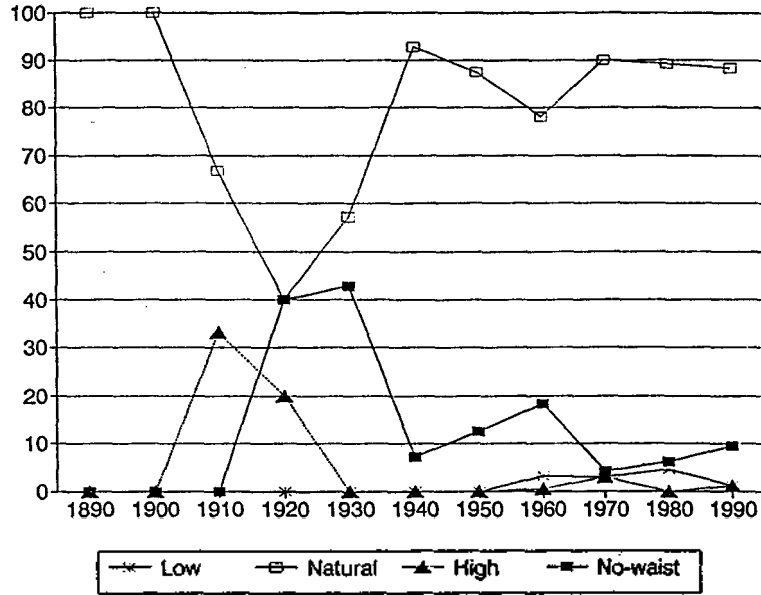


(년대)

<그림 13> 소매 맞음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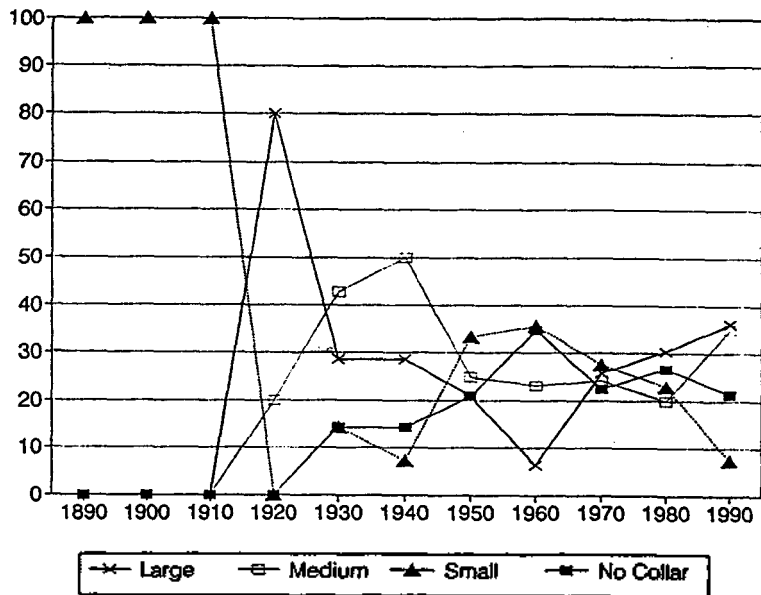
(단위 : %)



(년대)

<그림 14> 허리선 위치

(단위 : %)



(년대)

<그림 15> 칼라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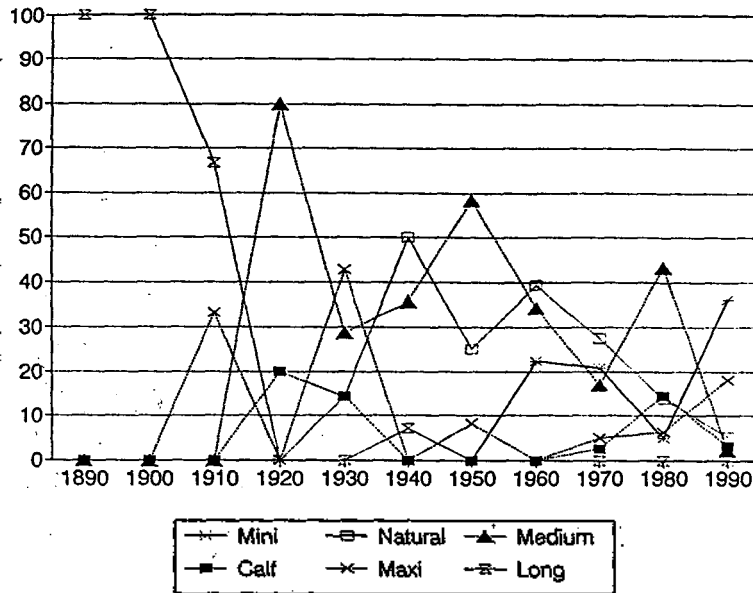
#### 4) 칼라 크기

18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는 칼라 크기가 작았으며, 1920년대에는 큰 칼라가 유행하였다. 1930년대 이후 조금씩 칼라 크기가 작아져 1950년대에는 다시 작은 칼라가 많이 나타났다. 1960년대 역시 작은 칼라가 많았으며 1970년대에는 비교적 다양한 크기의 칼라가 공존하였다. 1980년대 역시 비교적 칼라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특히 큰 칼라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도 계속 큰 칼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5) 스커트 길이

1890년대와 1900년대에는 검은 질 스타일의 의복으로 스커트 단에 트레인이 달려 바닥에 끌릴 정도였으나 1910년대에는 트레인이 사라지고 바닥 길이였으며, 맥시 길이의 스커트까지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는 미디 길이로 짧아졌으나, 1930년대에는 맥시 길이가 많이 나타났다. 1940년대에는 무릎선, 1950년대에는 미디 길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는 무릎선의 스커트가 많았으나 196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한 미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무릎선과 더불어 미니가 계속 많이 나타났고 미디, 맥시, 카프 길이의 스커트가 공존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특히 미디 길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1980년대 말부터 다시 등장한 미니스커트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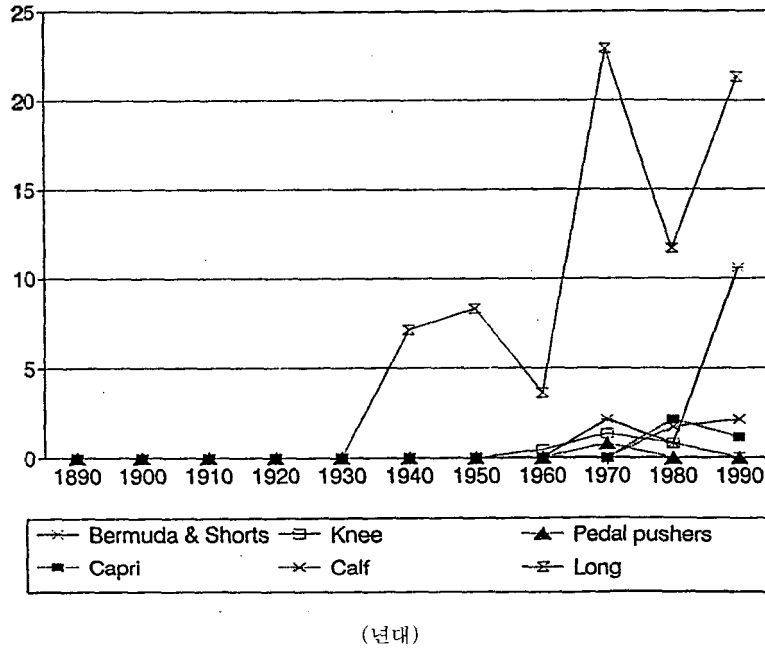
(단위 : %)



(년대)

<그림 16> 스커트 길이

(단위 : %)



<그림 17> 바지 길이

전체적으로 볼 때, 189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스커트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니에서 맥시까지 모든 스커트 길이가 혼잡 공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는 미디 길이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였으나 후반기 이후 미니에서 미디까지 다양한 변화를 통해 1990년대에는 미니와 맥시의 두 극단적 형태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커트길이에서도 1960년대의 미디스커트가 1980년대에, 1970년대의 미니스커트가 1990년대에 유행함을 나타내고 있어 20년주기의 반복현상을 알 수 있다.

6) 바지길이

189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는 바지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40년대에 몸매의 착용으로 바지가 등장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니스커트에 대한 정부의 억제책과 병행으로 바지 착용이 급증하였으며, 다양한 길이의 바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처음 나타난 숏 팬츠가 1990년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숏 팬츠가 20년을 주기로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결 론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0년 동안의 여성복식의 변천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90년대인 개화기를 기점으로 서양패션인 양장차림이 등장하여 이때부터 우리나라 여성복식은 한복과 양복의 이중복식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한복은 기본형에 큰 변화없이 저고리 길이와 치마길이의 변화, 색상의 변화로 유행의 맛을 살렸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 한복은 일상복보다는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예복으로 정착되었고 따라서 1960년대의 근대화 초기에는 김승걸, 자고 드레스, 버슬형의 양장스타일이 소개되었으나 특수계층에 한정되었고 대부분은 한복을 입었다. 1900년대에는 장옷의 폐지와 함께 우산과 통치마저고리가 수용되었고 하이네크의 롱드레스가 보여졌다. 1910년대에는 여학생들의 짧은 치마, 부녀자들의 긴 치마로 한복치마길이의 2중 구조가 나타났고 양장은 비숍슬리브의 원피스차림이 중심이었다. 1920년대는 양장이나 치마저고리위에 코트를 입는 신여성이 등장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개량한복을 입었고 양장은 허리선을 강조한 원피스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40년대는 몸빼와 간단복이라는 원피스가 입혀졌고 1950년대는 플레어스커트와 맘보바지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는 판탈롱이 인기를 끌었고 1970년대는 미니, 미디, 맥시, 판탈롱, 핫팬츠 등의 다양한 모드가 나타났고, 특히 진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는 초기에는 여유있는 (big & loose) 실루엣이, 후기에는 피트 앤드 플레어의 실루엣이 유행하였고 다양한 바지차림이 인기를 모았다. 1990년대는 자연스럽게 여성미를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여성 복식 형태 변천의 분석결과에서는 바디스 맞춤새, 소매 맞춤새, 바지 길이, 스커트 길이 등에서 양장이 일상화된 1960년대 이후, 특히 1970년대의 복식형태가 1990년대에 다시 반복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패션의 주기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갑오경장이 우리나라의 복식 구조에 양복과 한복이라는 이중구조를 낳게 한 이후 1960년대에 양장이 일상복화되었고,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수차례 경제 개발로 인한 의류산업의 발달로 한국사회에는 패션 산업이 정착화 되었고 복식 변천의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 수준과 유형의 변화와 국제화로 패션은 더욱 개성화,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행은 주기성을 지니고 있는 반복되는 현상으로 과거의 복식과 현재의 복식이 또 다시 개성화, 다양화된 미래복식들 중의 한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질 날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최경자, 「패션 50년」, 서울 : 의상사, p. 58, 1981.
2. 「조선일보」, 1934년 6월 16일.
3. 김의준 편, 한국메리야스공업총람, 서울 : 대한 메리야스공업 협동조합회, 1966.
4. 「조선일보」, 1957년 10월 10일.
5. 「여원」, 1961년 8월.
6. 「여성동아」, “기성복대혼전”, p. 31, 1978년 11월.

7.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이대출판부, p. 247, 1975.
8. 남윤숙, “한국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p. 70-71, 1989.
9. 박경자, “일제침략시대의 복식연구” 「한국복식논고」, 신구문화사, p. 240, 1989.
10.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수학사, p. 352, 1982.
11. 유수경,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p. 132, 1989.
12. 「제국신문」, 1898년 10월 12일.
13. 황 현, 「매천야록」, 대양서적, pp. 338-339, 1973.
14. 승의 80년사(편), 「승의 80년사」, 학교법인 승의학원, p. 89, 1983.
15. 유희경, 앞글, p. 438, 1982.
16. 유희경, 앞글, p. 439, 1982.
17. 권혜영, 한국여성 양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p. 46, 1982.
18. 유수경, 앞글, p. 169, 1989.
19. 유희경, 앞글, p. 442, 1982.
20. 박경자, 앞글, p. 242, 1989.
21. 유수경, 앞글, p. 210, 1989.
22. 「조선일보」, 1957년 6월, 7월, 8월.
23. 「부인경향」, 1950. 3. “양발 가지가지”, p. 40.
24.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p. 337-341, 1983
25. 「주부 생활」, 1970년 9월.
26. 동아일보, 패션진바지, 1985년 4월 2일
27. 엄혜정, 한국신세대의 복식양식, p. 40, 1991.
28. 땃, 동아일보사, 1990년 7월.